‘비구니 호계위원’ 종법 개정, 다시 논의되나

초심호계위원에 비구니 2인 참여
비구니 스님 사건 한해서만 심리
2014년부터 논의 있었지만 ‘무산’
올 3월 법계위원 탄생 긍정 요소
정운 스님 “개정안 상정·논의 기대”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사진은 2014년 8월 열린 제199회 임시회에서 원로회의가 인준 부결한 종헌 개정안에 대해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는 모습. 이날 종헌 개정안은 부결됐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2014년부터 꾸준히 제기돼 온 비구니 스님들의 호계위원 참여를 위한 종헌·종법 개정안이 오는 9월 5일 열리는 제235회 중앙종회 임시회에 상정될지 주목된다.

비구니 종회의원 스님들은 8월 25일 중앙종회사무처에 초심호계위원에 비구니 스님 2인이 참여하는 내용의 종헌 개정안과 ‘호계원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호계원은 종단 내 징계와 권한쟁의를 심의·판결하는 기구로, 현재 비구 스님들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비구니 스님과 관련된 사건도 비구 스님들이 심리하면서 당사자의 상황을 내밀하게 살피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통과돼 비구니 스님이 호계위원으로 참여하면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어 당사자의 권익 보호와 판결의 신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비구니 호계위원 참여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간 호계위원회와 법규위원회 등 종단 기구에 비구니 스님이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는 꾸준히 제기됐다. 시대의 변화에 따른 비구니 스님의 참종권 확대는 물론 비구니 승가의 고유한 수행 특성과 역량을 종단 운영에 반영해 종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뜻에서다.

이미 2014년 전국비구니회와 비구니 종회의원 스님들이 성명을 통해 “비구니 스님의 징계와 권한쟁의 심판에 있어 비구니 승가의 의견이 담보될 수 있도록 종헌·종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며 “이는 비구니 승가가 더욱 의욕을 갖고 종단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 같은 해 6월 제198회 임시회에서는 비구니 스님의 법규위원, 초심호계위원 참여를 허용하는 ‘종헌’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그러나 7월 조계종 원로회에서 절차상 문제가 제기돼 좌초됐고, 이어 열린 8월 제199회 임시회에서 ‘종헌’ 개정안에 대한 무기명 비밀투표가 진행됐지만 가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무산됐다.

개정 논의가 번번이 무산된 데는 교리적·정서적 배경이 존재한다. 특히 ‘율장에 의해 비구니가 비구의 잘잘못을 따지며 갈마 혹은 포살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이 높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비구니 호계위원이 비구 갈마에 포함되지 않고, 오직 비구니 스님의 사건에 한해서만 심리에 참여할 수 있어 율장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이 비구니 종회의원 스님들의 설명이다.

더욱이 율장에서는 비구 승가와 비구니 승가는 각각 자치적으로 운영됐고, 비구 간에 발생하는 문제는 비구 승가, 비구니 간에 발생하는 문제는 비구니 승가가 각각 독립적인 갈마를 통해 해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승가의 운영 방법을 규정한 율장 ‘건도부’에는 “비구들이 비구니들을 위해 갈마를 해서는 안 된다. 비구니들 스스로가 비구니들을 위해 갈마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조계종단 사상 처음으로 비구니 법계위원이 탄생한 것도 인식 변화의 긍정적인 요소로 꼽힌다. 올해 3월, 비구니 명사 법계 특별전형 심사에 비구니 법계위원 3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계법’이 개정됐고, 7월 본각·계호·광용 스님이 비구니 법계위원에 위촉된 바 있다. 비구니 승가의 참종권 확대 노력의 첫 제도적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비구니 종회의원 정운 스님은 “그간 호계원에서는 비구니 스님과 관련된 사건을 비구 위원 스님들이 심리해 비구니 스님의 상황과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최소한 비구니 사건에 한해서만이라도 문호를 개방한다면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최근 비구니 종회의원들이 70명의 비구 종회의원 스님들을 찾아가 개정안 동의 서명을 받았다”며 “이 과정에서 많은 종회의원 스님들이 개정안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시대 변화에 따른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조해 주셨다”며 개정안 상정과 논의에 기대를 나타냈다.

저고위, 진우 스님에 감사패 “저출산 극복 선도적 역할”

8월 25일, “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나는 절로’ ‘선명상’ 긍정적 평가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의장 진우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이 범종교 차원에서 저출생 극복 운동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는 8월 25일 “진우 스님이 지난해 8월 민간 주도로 발족한 ‘저출생극복추진본부’ 공동대표로 그간 범사회적 저출생 대응의 구심적 역할을 했다”면서 감사패를 수여한 사실을 밝혔다.〈사진〉

이번 감사패는 진우 스님이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의장이자 저출생극복추진본부 공동대표로서 저출산 극복에 앞장서 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저고위는 “진우 스님은 저출생극복추진본부 활동 외에도 조계종 총무원장으로서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미혼 남녀 만남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와 ‘선명상 대중화’ 등을 통해 젊은 세대들이 평안과 희망을 갖고 긍정적인 결혼관을 형성하도록 돕는 한편 가족친화적 사회문화가 조성되는 데에도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앞서 진우 스님은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지난 4월 18~19일 하동 쌍계사에서 개최한 청춘남녀 만나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에 함께하며 커플 성사를 응원한 바 있다. 당시 진우 스님은 “남녀 관계는 공감이 먼저”라면서 “내가 중매쟁이”라고 농담을 던져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불교계는 초고령화 사회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외로움을 덜어주고 고독사를 예방하는 인간관계 회복의 촉진자 역할을 이어가 달라”고 요청했다. 임은호 기자

성파 스님, 부실장들에 “본질과 진리 꿰뚫는 안목 가져야”

임명 후 종정 스님 예방
“한국불교 중흥에 최선”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가운데)와 기념촬영을 하는 부실장 스님들. 사진 뒷줄 왼쪽부터 사회부장 진성 스님, 기획실장 묘장 스님, 총무부장 성웅 스님, 문화부장 성원 스님, 교육부장 유정 스님.

“겉으로 드러난 말과 형상, 소리에 매이지 말고, 보이지 않는 본질과 진리를 꿰뚫어야 한다.”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가 8월 25일 양산 통도사 서운암을 찾은 총무원 부실장단에게 전한 당부의 말이다. 성파 스님은 “수좌는 시어무형(示語無形)이요, 형체 없는 형체를 보고, 청어무성(聽於無聲)이라 소리 없는 소리를 들어주라”고 법어를 전하며, 수행자이자 종단 소임자로서 지녀야 할 안목을 강조했다.

성파 스님은 “보이는 일에만 치우치면 금세 흔들리지만, 본질을 붙잡으면 종단은 흔들림이 없다. 부실장 스님들이야말로 종단 살림을 책임진 만큼, 눈에 보이는 행정 성과보다 근본을 지키는 마음으로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부실장단은 종정 스님을 예방한 데 이어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을 주지실에서 만났다. 현덕 스님은 “부실장 스님들이 맡은 소임을 책임 있게 수행해야 종단이 건강해지고, 한국불교의 위상도 바로 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예방에는 총무부장 성웅 스님, 기획실장 묘장 스님, 교육부장 유정 스님, 문화부장 성원 스님, 사회부장 진성 스님이 함께했다.

부실장단은 “종단 발전과 한국불교의 중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화쟁위원장 정만·민추본부장 성행 스님

진우 스님, 8월 28일 임명장 수여
“갈등 해소 · 남북 공감 힘써달라”



정만 스님



성행 스님

조계종 화쟁위원장에 정만 스님,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에 성행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8월 28일 서울 조계사 템플스테이관 3층에서 정만 스님과 성행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진우 스님은 신임 화쟁위원장 정만 스님에게 “국가적으로 국민이 평안하고 종단적으로도 종도들이 안정적으로 수행 정진하는 데 갈등이 없도록 화쟁위가 불교 화쟁 정신에 따라 평안을 위한 매개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쟁위원장 정만 스님은 “사회적으로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며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부처님의 기본 사상인 화쟁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수 있는 활동을 펼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진우 스님은 민추본부장 성행 스님에게도 “종단에서 심혈을 기울였던 금강산 신계사 복원처럼 북한과 물꼬를 트고 경색을 풀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민추본에서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민추본부장 성행 스님은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북한과의 화해모드를 잘 참고하고 협조해 민간단체 중에서도 불교 단체가 남북평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공동모연 캠페인

생명나눔! 불자님의 자비 손길이
캄보디아 아이들의 희망이 됩니다



자유롭게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의 작은 소원!
지금 우리가 내미는 작은 손길이
아이들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

지원 물품 학용품, 신발, 의료물품 등
후원 계좌 농협 053-01-269062 (현대불교신문)
※물품 지원 가능
후원 문의 02)2004-8214 2차 현지 방문 2026년 1월

현대불교신문사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